

아카이브와 박물관의 전시 비교와 개선방안

- 건국 60년 기념 전시를 중심으로 -

Archives and Museum Exhibitions Compared : with the Emphasis on the Exhibitions Held in Memory of the 60th Anniversary of National Foundation

김 연 주(Yeon-Joo Kim)*

목 차

- | | |
|-----------------------|------------------------|
| 1. 머리말 | 3.2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의 구성과 특징 |
| 2. 국내 아카이브 전시의 현황과 특성 | 3.3 비교 분석 |
| 3. 건국 60년 기념전시의 비교 분석 | 4. 맺음말 |
| 3.1 국가기록원 전시의 구성과 특징 |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박물관 전시와의 비교를 통한 아카이브 전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 아카이브 전시현황 및 박물관 전시와의 비교를 통한 아카이브 전시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고, 특히 국가기록원과 국립민속박물관의 건국 60년 기념전시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아카이브 전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개선 방안으로는 '전시 분야별 뚜렷한 목표 고객 설정, 전시 주제 및 대상에 따른 적절한 메시지 전달, 특정 주제형 전시 지향, 관람객의 피드백을 반영한 전시 기획, 전시 교육 서비스의 활성화, 소장 근·현대 자료의 중립적 해석과 생활문화사 자료 중심 연출' 등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건국 60주년 기념전시, 국가기록원, 국립민속박물관, 아카이브 전시, 주제형 전시, 생활사, 아웃리치 서비스

<ABSTRACT>

This study seeks some ways to improve archives exhibitions by comparing with museum exhibi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overviews the present state of domestic archives exhibitions and extracts some features compared to museum exhibitions. And it suggests some improvement ways for archives exhibitions especially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pecial exhibitions held by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in memory of the 60th anniversary of National Foundation. It derived some ways to facilitate archives exhibitions hereafter, they were targeting distinctive customers for each area, communicating proper message for the theme and target of exhibitions, orienting theme-typed exhibitions, reflecting customers' feedback, exhibition educational services' invigorating, neutral interpretation of modern archives, and offering material on life and cultural history in priority.

Keywords: exhibitions in memory of the 60th anniversary of national foundation, national archives of korea,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rchives exhibition, outreach service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yjkim11@mopas.go.kr)

■ 접수일자 2009년 11월 30일 ■ 수정일자 2009년 12월 16일 ■ 게재확정일자 2009년 12월 18일

1. 머리말

아카이브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기록보존관리에만 초점을 맞춰오던 상황에서 이제는 기록정보서비스 확대에 변화하고 있다.¹⁾ 이에 따라 출판·전시·교육 등의 다양한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²⁾ 이 가운데 전시프로그램은 아카이브에 생소한 일반인들과 쉽게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방식 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아카이브의 소장기록물에 대한 홍보를 통해 누구나 쉽게 기록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접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설문원 2008).

하지만 지금까지 아카이브 전시는 근본적으로 내용 중심의 기록을 토대로, 제시하는데 주력하여 왔다. 그렇기 때문에 관람객의 관심도가 극히 저조하거나 전시 행사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리고 정책자료(문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외연의 기록(문서 이외의 행정박물 등)이 배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아카이브 전시 서비스는 앞으로도 관람객의 관심과 호응을 크게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공공 박물관이나 아카이브 전시는 대체로 소장 자료와 일정한 주제를 토대로 전시 목

적을 밝히고, 일반 관람객의 이해와 역사적 해독력을 높이는데 주안을 둔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자료 선정부터 전시과정, 동선, 기대효과 등이 비교적 명확히 제시된다. 특히, 박물관은 다양한 관람객의 기대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시 주제 선정, 전시 기법과 교육프로그램, 체험코너 조성, 문화행사 등 다각적 측면에서 참여지향적인 전시 운영을 표방하고 있다. 아카이브 역시 공공 서비스 프로그램의 중요한 축으로 전시 프로그램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전시기획과 전시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람객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전시프로그램이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고객과의 접점으로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진행된 아카이브 전시에 대한 현황분석이나 실제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내박물관의 전시와 실제 사례 비교를 통해 아카이브 전시의 개선방향을 찾고자 한다. 특히, 건국(대한민국 정부수립) 60년을 기념하여 유사한 장소와 시기에 개최한 국가기록원과 국립민속박물관의 특별전을 비교하여 보았다.³⁾

지금까지 국내 아카이브 전시에 관한 논의는

1) '기록정보서비스의 과제, 미국의 이용자 중심 기록정보서비스, 지역과 함께하는 일본의 기록정보서비스, 국가기록원의 열람서비스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 등 기록정보서비스를 특집기사로 다루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역시 기록서비스 확대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국가기록원 2008, 8-39).

2) "아카이브의 홍보는 기록관의 미션에 부합하는 이용자 서비스를 정의하고 제공하는 과정으로 특히, 혜택받지 못한 이용자 그룹의 정보요구에 맞추어 제공하며 전시프로그램, 출판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다"(SAA 2004). 국가기록원도 전시·출판·교육 프로그램 이외에도 경부고속도로 등 '나라기록포털'에 소장기록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온라인 기록콘텐츠를 구축하여 기록정보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3) 국립민속박물관의 건국 60년 전시가 박물관 전시의 대표적인 전범(典範)은 아니지만 건국 60년을 기념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으로 국가기록원과 거의 동시에 유사한 지역에서 개최하였으므로 적어도 아카이브와 박물관 전시의 차별성(전시물, 전시기획, 전시연출, 전시실무 등)을 찾아보는데 유용한 사례가 될 것이다.

대체로 전시실무 경험, 아웃리치프로그램의 하나로 전시 소개, 온라인 전시, 전시환경 연구 등으로 정리된다. 전시실무경험 보고로 이원규(2005)는 연세 120주년 기념전시 실무경험을, 이경훈·김재훈(2006)은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 개관 기념전시 실무경험을 소개하였다. 위 논고는 전시실무 과정 전반에 걸친 경험을 소개하였지만 각 전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진행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유의미한 소장 기록물의 발굴·정리, 기관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홍보 효과 등 아카이브 전시의 효용성을 보여주는 실제 기초사례 연구로 주목된다. 아웃리치프로그램의 하나로 전시를 소개한 글로 김상호(1998)는 '전시회의 기능과 방법, 전시프로그램의 계획과 개발, 전시자료의 배치 및 보호' 등 기록물 전시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전시 개요를 소개하면서 아카이브의 가장 일반적인 홍보프로그램의 하나로 전시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이혜원(2007)은 Archivaria의 Exhibition Review를 토대로 아카이브 전시유형을 4가지로 구분하고 아카이브 전시프로그램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해외 및 국내기록관의 전시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아카이브 전시의 활성화 방향에 긍정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정은진(2007)은 미국의 NARA, 영국의 TNA, 호주의 NAA, 뉴욕주립기록보존소 등의 전시프로그램 현황을 소개하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공공프로그램의 하나로 전시프로그램의 유용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양은영(2004)은 지적 이용제공의 영역을 검색도구의 개발, 홍보와 전시, 출판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조지미니기념관의 전시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소장기록물을 활용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으로 전시기능을 강조하였다. 온라인 전시에 관한 글로 이희숙(2004)은 인터넷을 통한 아카이브 서비스 활동 사례를 분석하고 새로운 아웃리치서비스의 가능성으로 인터넷 전시관의 운용 사례를 들고 있다.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NARA) Exhibits Hall, 텍사스 주립도서관, 영국 TNA, 미국 매릴랜드 주립기록관, 하버드 대학기록관, 국가기록원 등의 온라인 전시를 소개하면서 다양한 주제와 상세한 내용을 세밀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온라인 전시의 실제적 효용성을 제시하였다. 이선희(2009)는 국가기록원 기록전시 사례 이외에 특히 미국의 의회도서관, 미국의 국립기록관리청(NARA), 미국 대통령도서관의 다양한 온라인 전시서비스를 소개하여 온라인 전시의 기초 연구 사례로 주목된다. 전시환경에 관한 기초연구로 김진숙(2007)은 전시환경 표준을 분석하여 국내 전시환경 표준 제정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 성과들은 아카이브 전시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들로 아카이브 전시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전시 실제 사례 연구를 통한 아카이브 전시의 방향성과 구체적 대안을 실질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아카이브 전시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분석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상의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한 위에 아카이브와 박물관 전시의 실제 사례 분석을 한 축에 두고 다른 한편으로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현행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아카이브 전시현황을 분석하고 박물관 전시와의 비교점을 토대로 아카이브 전시의 특성과 발전방향을 찾아보고, 건국 60주년 기념 특별전인 국가기

록원의 특별전(대한민국)과 국립민속박물관의 특별전(그 고난과 영광의 순간들)을 비교 분석한 뒤, 그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아카이브 전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국내 아카이브 전시의 현황과 특성

2.1. 국내 아카이브의 전시 현황

아카이브는 기록이 핵심인 기관이다. 기록은 개인이나 조직이 활동이나 업무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정보이다. 기억의 확장으로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불러 반복적으로 재인용할 정보라는 힘이 기록의 가장 중요한 개념적 요체이다.

그런데 기록이 경우에 따라서는 문서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기록개념은 매체와 상관없이 인간이 기억을 확대하고 설명책임을 충족시킨다면 박물관(artifact)도 기록에 포함된다(한국기록학회 2008). 아카이브는 내용·맥락·구조를 지닌 이러한 기록 자료들을 활용하

여 고객(관람객)에게 역사적인 주제와 자료들에 대한 흥미를 자극하는 훌륭한 도구로 전시를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전시는 공공프로그램의 중요한 영역으로 대중을 대상으로 아카이브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공공아카이브에서도 전시홍보의 효과에 주목하고 기관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전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최근 국내 일부 기관에서 전시를 개최한 사례 가운데 연세기록보존소(2005), 대한불교조계종 중앙기록관(2005), 전북도청(2008) 등이 주목된다(표 1 참조).⁴⁾

연세기록보존소의 전시는 소장 대학기록물을 활용하여 연세대학교 120년의 역사를 조명하였다. 실증적 사료 활용, 문서, 사진, 동영상 등 다채로운 자료의 입체적 운용, 미학적 연출, 역사의 회고와 자성을 넘어 미래로의 도전과 사명을 고취하는 미래적 가치 지향을 기본 방향으로 하였다. 기본구성은 '도입부(120년 역사로의 초대) → 제1영역(개척과 도전: 1885~1956) → 제2영역(정립과 도약: 1957~1999) → 종결부(새 역사의 설계: 2000~)' 순으로 이를 통해

〈표 1〉 연세기록보존소·조계종 중앙기록관·전북도청의 기록전시

전시명	전시 컨셉	전시물	기간	장소
연세창립 120년 특별전시 '연세의 얼과 숨결, 그리고 미래'	연세 120년의 역사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시	300여 점	2005. 5.2-5.21	연세대100주년 기념관
기록으로 보는 한국불교와 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종단으로 우뚝 서기까지 일제시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간을 조망	150여 점	2005. 11.14-30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기록으로 본 전라북도 희망일기	건국 60년 기념하여 조선시대~현대까지 전북의 역사를 조망함	400여 점	2008. 8.11-8.31	국립전주박물관

4) '기록으로 본 희망일기'는 전북대학교 박물관 내부자료 이외에 다음의 신문 기사를 참조하였다.
 데일리안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id=121057> [cited 2009.12.9].
 새전북신문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2447>> [cited 2009.12.9].

학교사를 총정리하고, 고객(학생·교직원·일반인등)과 호흡하며, 기관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공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체 역량을 축적·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연세기록보존소 2008).

조계중 중앙기록관의 전시는 소장 중인 대한불교 조계종 관련 기록물로 일제시기부터 현대까지의 대한불교 조계종 역사를 되짚어보았다. 전시 구성은 '제1부 되돌아보는 조계종의 숨결: 근대불교의 여명, 해방, 불교정화, 통합종단과 개혁' → '제2부 조계종과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불교, 행동하는 불교, 통일을 지향하는 불교, 세계로 뻗어가는 불교' 순으로 불교사적으로 유의미한 불교 현대사 조명 기록들을 발굴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이경훈 등 2006).

그리고 전북 도청의 전시는 소장 공문서, 간행물, 사진, 영상, 행정박물 등 도정기록들을 활용하여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기록 속에 담겨진 전북이 발전해온 변화상을 담아내고 있다(그림 1 참조). 전시 구성은 '아 전라도 → 수탈 1번지, 전라북도를 약탈하다 → 도청, 도의회 무

슨일을 하는 곳일까 → 사진으로 본 전라북도 삶, 생활사 → 전라북도 희망일기(프로젝트) → 나도 역사가 → 도정 60년(기록보존의 역사) → 1천년의 도청사 그 부침의 세월 → 추억속으로, 대한 뉴우스 속 전라북도 → 고지도로 본 전라도 → 전라북도 14개 시군의 청사 변화 → 도정 60년 희망의 일기를 쓰다 → 땀흘린 만큼 희망이 쌓인다' 순으로 엮어져 있으며 특히 조선시대 지방행정 기록인 전라도 관찰사 이사명의 '관찰선생안', 계화도 간척공사 사진, 전북체육대회 성화봉, 대한 화보 제1호, 1970년대의 전북관련 대한 뉴우스, 새만금 공사 등 전북의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다양한 기록과 행정박물이 전시되었다.⁵⁾

특히 '도정 60년 희망일기를 쓰다' 존에서는 해방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전라북도의 주요 도정 시책과 주요 사업 및 사건 사고 등의 관련 기록을 사회기반시설, 농업, 도시, 산업, 문화예술, 체육, 새만금 등 소주제별로 나누어 전시하고 있어 전라북도의 현재를 잘 보여주고 있다(표 2 참조).



〈그림 1〉 '전라북도 희망일기' 전시연출 모습

5) '기록으로 보는 전라북도 희망일기' 전시의 주요내용들은 전북대학교 박물관의 전시관련 내부자료 및 전시추진계획(2008.3)을 참고하였다.

〈표 2〉 ‘도정 60년! 희망일기를 쓰다’ 존의 소주제별 전시물

대주제	소주제	전시물
도정 60년! 희망일기를 쓰다	길, 소통의 희망을 닦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기록(도로, 철도, 항만 등)
	쌀, 풍요의 일기를 쓰다	농업관련 기록(새마을 운동, 호남야산개발, 간척사업 등)
	도시, 삶의 공간을 창조하다	도시계획 관련 기록(도시개발계획 등)
	산업, 생산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주요 공단관련기록(전주공단, 농공단지 관련 등)
	문화예술, 영혼을 살찌우다	전북문화상, 전라예술제, 각 지역 문화예술관련 자료 등
	체육, 건강한 영혼을 만든다	역대 주요 체육대회(전국체전, 동계 U대회, 월드컵 등)
	새만금, 새로운 희망의 일기를 열다	20년 새만금의 역사와 문화, 새만금 관련 각종 자료
	도정 60년 희망의 일기들	전라북도 발전계획 보고서 및 도면, 조감도 등

위의 전시들은 각 아카이브의 특성에 맞춰 소장기록물을 중심으로 기관의 역사, 지역의 역사를 기록전시로 재현하였다. 이들 전시는 주제영역이 소장기록물 중심의 학교사, 불교사, 지역사 등 특정 영역에 국한되고, 관람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하였지만 공공 아카이브 전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 가운데 ‘기록으로 본 전라북도 희망일기’는 기록을 통해 지역사의 원형을 역사적 맥락으로 풀었다는 점에서 아카이브 전시를 구체화시켰다. 특정 주제·내용을 기록으로 일관되게 엮었으며, 광범한 자료영역의 아카이브를 각 주제별 전시공간으로 풀어내었다. 특히, 기존 박물관이 아카이브 자료를 유물로 해석하여 보여주는 일반 전시와 달리, 이 전시는 사회상의 변화를 아카이브 영역에서, 전시 자료의 다양한 활용이라는 긍정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가기록원에서도 상설전시관 운영과

더불어 특별전 등을 활발하게 개최했다.⁶⁾ 이들 전시는 아카이브를 소재로 한 전시였으나, 전시 자료나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차이점을 보여준다.⁷⁾

〈표 3〉에서 보듯이 2008년 기획전 ‘구호로 보는 시대풍경’과 특별전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2009년엔 ‘대한민국 희망기록전’과 국가기록원 개원 40주년 기념전시인 ‘길, 전(前)대통령 기증기록전인 ‘선물과 유품으로 만나는 박정희’ 등이 개최되었다.


우선 구호로 보는 시대풍경전은 ‘6·25 전쟁, 그 후 이야기들 → 경제개발·수출·증산 → 새마을, 잘 살아보세 우리 한번 잘 살아보세 → 우리들의 시대, 우리들의 구호 → 포스터, 세상이 보여요’ 6장으로 구성되었다. 표어, 포스터, 담배 등 일상 생활 속의 전시물을 활용한 시대풍경전으로, 주제별 코너마다 다양한 기록물을 전시하여 기록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였다(표 4 참조). 특히 이

6) 국가기록원은 1998년 본원(대전정부청사 2동)에 국가기록전시관을, 2002년에 부산 기록정보센터(현 역사기록관)에 기록문화전시관을, 2008년엔 나라기록관에 국가기록전시관과 대통령기록전시관 등 상설전시관을 개관하고 지역별로 운영해오고 있다(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2008, 234-237).
7) 국가기록원 내부 문서 ‘구호로 보는 시대풍경전 결과 보고(기록편찬문화과, 2009.1.14) : 건국 60년 기념 국가기록 특별전 개최 결과 보고(기록편찬문화과, 2008.11.5) ; 대한민국 희망기록전 결과 보고(기록편찬문화과, 2009.6.9) : 국가기록원 40년 기념 기획전 기본 계획(안)(기록편찬문화과, 2009.4.28) ; 대통령기록물 기증 특별전 개최 결과 보고(연구서비스과, 2009.10.30) ; 국가기록원 2009, 235-238.

〈표 3〉 아카이브 기획전(특별전) 현황(2008~2009년)

전시명	전시 컨셉	전시물	기간	장소
구호로 보는 시대풍경	구호를 통해 과거 60년 시대풍경을 조망	220여 점	2008.7.29-2009.7.11	국가기록원 기획전시실
건국 60년 기념 특별전 '대한민국'	국가기록을 통해 건국 60주년의 의미를 재조명	200여 점	2008.8.5-8.31 (실내전)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대한민국 희망기록전 -어제의 기록, 내일의 희망을 본다	대한민국의 역경극복 과정 조망	250여 점	2009.3.16-5.31	청계광장, 대전역, 금호터미널, 부산역
국가기록원 개원 40주년 기념 '길'	국가기록원 40년의 발자취와 대한민국의 성장의 역사 조망	150여 점	2009.8-12.31	국가기록원 기획전시실
선물과 유품으로 만나는 박정희	박정희 前대통령 기증기록물 전시	200여 점	2009.10.20-10.29	고궁박물관 기획전시실

〈표 4〉 '구호로 보는 시대풍경전-우리들의 시대 우리들의 구호' 존 전시 기록 및 전시 연출

구분	주요전시 기록	전시연출 모습
1950년대 골목길	대한민국 헌법, 유인승인 헌증증, 선거유인물, 국민반유인물, 주간희망 표지, 국민투표 리플릿 등	
1960년~1970년 골목길	재건화보, 재건체조(그림), 재건통신, 쥐잡기 포어·포스터·홍보 동영상, 미곡증산 각종 포어, 너염예방 전단, 헌혈포어 등	
담화문	지방세 납부 담화문, 보건소 안내 벽보전단, 미터법 개량법 공고문 등	

전시는 세대간이 공감할 수 있는 '구호'를 소재로 한 생활사 영역의 전시였다는 점에서 향후 아카이브 전시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전쟁, 경제개발, 새마을, 가족계획 등 현대사의 특정사건이나 내용에 국한 또는 시대맥락을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주제형 키워드 중심으로 전시를 엮어내고 있다. 즉 일련의 사실을 하

나의 범주속에 포함시켜 대주제 아래 소주제로 기록물을 묶어내고 주제 중심의 전시를 연출하고 있다.⁸⁾ 그 결과 박물관 전시에서 연출하기 힘든 기록을 통한 정보제공 능력과 주제형 키워드에 상당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문서와 포스터, 담배, 공책, 식량증산 그릇, 새마을 모자, 음반, 포스터 등 다양한 유

8) 주제형 키워드는 시대나 사회를 읽게 해주는 결정적 개념·용어 등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예컨대 특정 사건·내용에 국한 또는 시대맥락을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용어로, 혹은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역사적 용어·개념으로 임시적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주제형 키워드에 대한 깊은 논의는 추후 『구호로 보는 시대풍경전 사례연구』를 통해 구체화 시켜 발표할 예정이다.

형의 기록과 행정박물을 묶음으로 연출하여 유물과 개념의 상관도를 높이는 기획의도를 그대로 보여주었다(그림 2 참조).

한편, 건국 60주년 기념 특별전은 '국가의 기틀을 놓다 →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다 → 기적의 열매를 맺다 → 민주화를 이루다 → 세계로 나아가다 → 유엔의 시선으로 본 한국' 순으로 구성되었고,⁹⁾ '희망기록전-어제의 기록, 내일의 희망을 본다'는 '전쟁의 잿더미에서 키운 희망 → 보릿고개를 넘어 → 오일쇼크의 파고를 건너 →

한조각의 금, 하나된 감동 → 검은 재앙에서 일군 기적 → 대한민국, 희망기록 찾기' 순으로 구성하여 한국 현대사의 다양한 굴곡을 조망하였다. '길' 전시는 '국가기록원이 걸은 길 → 땅길 → 철길 → 물길 → 하늘길 → 우주길'로 구성하여 국가기록원의 과거, 현재, 미래와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를 동시에 조망하였다(그림 3 참조). 하지만 이들 전시는 대한민국의 성장과정을 배경으로 동일한 전시유물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고 전체 맥락 또한 유사하여 주제의 신선함



혼분식 존의 문서, 식량증산 그림, 표어, 간행물, 포스터, 모형 등 포스터 존의 포스터, 학생소품, 사진, 문서 등 패널 연출

〈그림 2〉 구호로 보는 시대풍경전의 '문서+외연'의 자료 묶음 연출 모습



희망기록전 서울 청계천 광장

국가기록원 개원 40주년 기념 '길'

〈그림 3〉 '희망기록전' 및 '국가기록원 40주년 길' 전시연출 모습

9) 다음 장에서 건국 60년 특별전 '대한민국'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의 특별전과 상세히 비교하겠다.

은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위의 전시 들은 문서, 사진, 동영상, 행정박물 등 다양한 기록자료들을 주제형 키워드 중심으로 묶음연 출하여 한국 현대사를 밀도있게 재현하고 아카 이브 전시의 특성인 기록정보 제공능력을 강화 시켰다.

한편, '선물과 유품으로 만나는 박정희'는 '도 입부 → 선물관(국내선물관, 국외선물관, 특별 선물관) → 사저 유품관 → 영상관' 등 4개 존으 로 구성되었는데, 박정희 전(前) 대통령의 발자 취(유년시절, 재임기, 가족사진) 및 1960~70 년대 외교 국정 활동을 구현한 전시였다. 이번 전시는 '대통령 선물'¹⁰⁾ 위주로 최초로 기록원 에서 개최한 기증특별전으로 문서 위주가 아닌 '박물(artifact)' 위주로 전시물을 구성하여 아 카이브의 전시 영역이 확대되어가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아카이브 전시의 현황을 요약하면, 연세기록보존소, 조계중중앙기록관, 전북도청 은 문서, 시청각, 행정박물, 기증자료 등을 기관 의 소장기록물을 중심으로 기관의 역사를 보여 주는 기관전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가기록 원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의 정책 이나 현황에 따라 시의성 있는 전시와 기관 홍보전시를 병행하고 있다.¹¹⁾

이처럼 아카이브의 전시도 종래 문서 중심의 기록정보자료를 제공한다는 전시 취지에서, 최 근에는 전시주제, 전시 내용에 있어 다양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아카이브 기관 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 나 일반 박물관처럼 이용자를 위한 관람객 설 정,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은 다소 미흡하며, 전 시연출 분야 또한 멀티미디어나 시청각, 홀로 그램 등 시각적 이미지 연출부분은 보완될 필 요성이 있다.

한편 전시 주제나 전시 시기가 유사할 경우, 아카이브와 박물관 간에 이용자 중심의 공동전 시 기획도 권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아 카이브와 박물관 모두 문화기관으로서 공공서 비스의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카이브(기록자료)가 근본적으로 역사적 근 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를 일반 국 민들에게 소개하여 서비스하는 것도 궁극적 공 공 서비스 목적에도 부합될 것이다.

아울러 향후 지방아카이브 및 대학기록관, 공공아카이브들이 활성화 될 경우, 아카이브 전시는 대체로 다양한 기록을 활용한 전시가 진행될 것이므로 전시를 통한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록의 발굴과 소개 및 깊이 있는 연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0) 전시 오브제 가운데 특히 '승전고'는 태국 수상 타놈 끼띠카존(Thanom Kittikachorn)이 1966년 2월 동남아 순 방중이던 박정희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으로 상아로 장식된 승전고(금속제와 목제의 지지대 위에 상아 기둥을 세우고, 북을 매단 모습임, 가로95cm, 세로 31cm, 높이 80cm)로서 우아하고 수려함을 뽐내어 포스터와 도록의 대 표이미지로 사용되었다(대통령기록관 2009, 19).

11) 이해원은 Archivariva의 Exhibition Review[캐나다 아키비스트 협회(ACA)에서 발행하는 학술 전문지로, 캐나 다와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한 기록관 전시에 관하여 전시타이틀, 전시일, 전시주제, 전시구성의 소개 및 평가]를 토대로, 기록관 전시의 유형을 기관전시, 행사전시, 주제전시, 기능전시 등 4가지로 구분하였다. 기관전시는 모기 관의 역사, 기능, 활동에 관한 기록물 전시로, 행사전시는 지역, 기관, 집단행사에 관한 기록물 전시로, 주제전시는 특정시대, 인물, 사건, 장소에 관한 기록물 전시로, 기능전시는 기록관, 기록관리 업무에 관한 전시로 정의하였다 (이해원 2007, 20-27).

2.2 아카이브 전시의 특성과 발전방향

아카이브는 공공기관의 공적 업무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인 보존처리 과정을 통해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기관으로서, 대중에게 열람, 전시, 교육 등의 방법을 통해 기록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기록문화유산을 후대에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아카이브 역시 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하여 고객과 다양한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박물관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시를 위한 엄숙한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대중에게 정보와 여가를 제공하는 문화공간으로 그 의미와 위상이 확대되고 있다면, 아카이브 또한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이용자를 중심에 두는 서비스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¹²⁾ Dearstyne(1994)은 기록관의 기능을 열람 서비스의 전통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고객(이용자)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점에서 공공의 목적을 가진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상업적인 전시회와 달리, 교육적이고 태도·행동·지식의 변화와 함양을 중요한 목적으로 설정한다.

한편 박물관은 궁극적으로 '문화, 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기관으로 기능에 있어 아카이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자료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도 아카이브의 그것과 목적을 같이 하고 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는 박물관과 같은 성격으로,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제5조)로 그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의적 규정은 곧 박물관과 아카이브(기록관, 문서관)의 전시의 목적이나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생각된다.¹³⁾

아카이브의 자료는 단지 문서뿐만 아니라 민간, 공공 기관에서 생산한 역사성, 문화성을 가진 모든 기록으로 그 범주가 넓기 때문에,¹⁴⁾ 전시에도 그러한 개념적 범주를 포괄하는 다양한 기록들을 소개하여, 아카이브의 위상 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여러 박물관은 관람객들이 박물관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스스로 권위를 벗고

12)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는 "기록관의 사명과 관련된 요구를 가진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알리고,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요구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제공되는 여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SAA 2004). 확장서비스로서 아카이브가 현재의 이용자 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용자의 기록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기다리는 서비스'가 아니라 '다가가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한국기록학회 2008, 282).

13) 이 외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09.3.5 일부개정)에는 박물관을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제2조)로, 박물관 자료를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14)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민간기록물과 영상기록물(영화 등)도 아카이브 수집 기록물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3조제43조46조 참조].

박물관의 역할을 관람객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소장품' 관리에서 '고객(이용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기존의 소장품을 단순히 전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관람객에게 전시 의도와 소장품의 가치를 전달하고자 교육적이고 입체적인 전시방법으로 변화하고 있다.¹⁵⁾

이러한 박물관의 전시 분야, 주제, 전시스타일에 대한 현격한 패러다임 변화는 고객과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박물관 전시의 주제 선정에도 고객(이용자)의 지향점을 읽어 낼 때 성공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예전은 박물관이 중심이 되어 주제 선정과 유물 선정 등 전시의 기본방향을 정하는 일방적인 전달형 전시였다면, 최근에는 주제를 특수한 시기, 영역, 기념행사 등 좁고 깊은 내면까지도 전달하려는 전시 주제의 다변화와 집중성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쌍방향의 소통 전시로 바뀌고 있다. 이른바,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이 시대변화 속에서 능동적인 자기변신을 해야 한다는 요구이자, 관람객(이용자)의 신뢰를 얻는 최선책을 자각했기 때문이다.¹⁶⁾

이러한 부분은 '기록문서는 평면적이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고객(이용자)의 선입견을 극복하고 고객(이용자) 중심의 전시를 지향해 나가야 하는 아카이브 전시의 과제이기도 하다.

기록이 중심인 아카이브로서는 전시가 '기록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문화적인 경험과 감동과 즐거움을 제공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방법의 하나(Pederson & Casterline)'로서 기록관의 존재와 유용성을 드러내고 관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Pederson, Ann E & Casterline, Gail Farr 1982; 이혜원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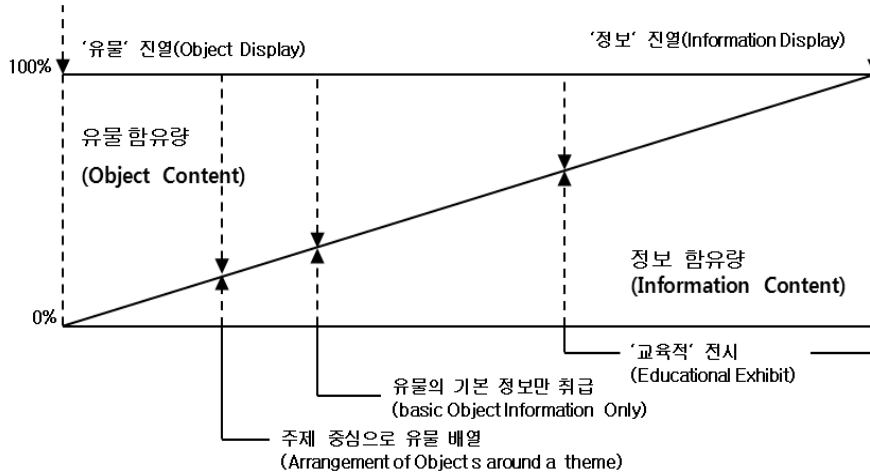
박물관학적 입장에서 본다면, 자료 전시는 크게 유물 지향과 개념 지향으로 나뉜다. 베르하르(Verhaar)와 메터(Meeter)는 전시프로젝트 모델¹⁷⁾을 제시하여 전시물 함유량에 따라 전시회의 성격을 분류하였다(표 5 참조). 대부분의 전시회는 도표의 대각선을 따라서 그 중 어딘가에 해당하며 양 극단 중 어느 한쪽의 상대적인 우세는 전시회가 유물 지향적인가 아니면 개념 지향적 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유물(오브제) 지향 전시(Object-oriented Exhibition)는 전시자료를 표제 사인·인식 라벨·설명문 등의 기본정보와 함께 주제 중심으로 배열하며 개념 지향 전시(Concept-oriented Exhibition)는 유물(오브제) 보다는 메시지와 정보 전달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분류하였다. 개념 지향적 측면에 더 가까운 교육적 전시는 약 60%의 정보와 40%의 유물(오브제)로 통합되어 있으며, 텍스트의 정보는 전시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전시형태는 메시지가 전달하는 것과, 전시회에 가장

15) 기현정 2008, 7-10.

16) 현대 사회의 문화 다원주의와 각 예술 장르간의 상호침투 현상과 중층구조는 전시물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상대주의적 해석을 가능케 하며, 관람객은 수동적으로 전시를 관찰하는 '옵저버'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특정한 문화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신의 체험과 지적능력을 동원하여 전시를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대는 전시 기획 시 관람객의 수요, 요구, 기호를 파악하여 이를 기획에 반영하는 '상호소통'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관람객과 적극적 교류를 꾀하고 있다(이보아 2001, 180-183).

17) 프로젝트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경과들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를 프로젝트 모델이라고 한다 [Vehaar, Jan and Han Meeter 1989, 4; Dean, David(전승보 옮김) 1998, 22 재인용].

〈표 5〉 전시물 함유량 비율



효과적인 형태의 유물(오브제)과 정보의 조합은 어떤 것인가를 토대로 결정해야 한다.¹⁸⁾

대부분의 박물관은 소장 자료나 대여 자료를 전시 주제로 설정한 유물 지향의 성격을 가진다. 물론 정보전달에 목적을 둔 개념 지향 전시도 개척되지만, 이들을 복합적으로 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방법은 기록정보 자료를 전시하는 아카이브에서 유의할 만한 것으로, 메시지 전달을 위한 문서류와 행정박물관 등을 연계하여 전시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종래의 박물관은 미술과 고고유물을 토대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는 동떨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다양한 박물관이 만들어지면서, 국민생활과 직결된 생활사·문화사를 표방하는 전시는 많은 관심과 참여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험하거나 체험했던 가까운 과거의 전시는

기억의 재생뿐만 아니라 국민 자신들이 읽어낼 수 있는 참여형 전시를 가능케 하였으며, 문화의 전달이나 생활의 기억을 되짚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한 비근한 예는 국립민속박물관이나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생활사 박물관, 역사박물관 전시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울러 생활사 박물관 등은 아카이브 전시 운영에도 모범사례로 볼 수 있겠다.

아카이브는 근본적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생산했던 다양한 정치·사회·경제 등의 근거가 되는 문서와 박물관자료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다양한 역사적 실체를 촘촘히 보여주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따라서 생활문화속 기물(器物), 생활물품, 사진, 일기, 엽서 등 생활 기록자료, 동영상, 기증 유물 등을 활용하여 일상 생활문화와 밀접한 주제로 전시를 진행하고 있는 생활사 박물관의 전시 기법들

18) Dean, David(전승보 옮김) 1998. 14-17; Edson, Gray & Dean, David 1996. 153-156.

은 아카이브 전시 연출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¹⁹⁾

박물관 전시는 대부분 소장 유물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전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읽는 데는 한계가 따른다. 대부분 전시 기획자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고, 유물 선정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패널이나 라벨 등은 기획자가 배치한 전시 유물 동선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전시물 해석²⁰⁾은 주로 기획자와 관람객이 이해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된다. 따라서 전시 주제, 내용, 동선 등이 체계화되지 않으면, 전시 기획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전시 유물의 성격이 유물 지향의 경향성에 치우칠 경우, 관람객은 충분한 사전지식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내용 위주의 전시는 간접적인 것으로 소개될 수밖에 없으며, 역사적 해석이나 연구 등을 위한 유물 활용은 일정한 한계를 보이며, 때로는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시 주제와 내

용은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객관적 전시를 구현하는 방향을 항상 고민해야 한다.

이처럼 박물관은 전시가 핵심인 기관으로 전시를 통한 고객창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지만, 아카이브는 전시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전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활용 서비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아카이브에서 아웃리치 서비스의 하나로 전시를 추진한다면, 박물관의 전시프로세스를 참조하여 전시 기획 단계부터 전시 자료에 대한 철저한 연구,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시물에 대한 충분한 이해 등의 단계별 프로세스를 충실히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문서(기록정보자료) 중심의 전시 한계를 극복하고, 고객 중심의 전시 지향을 이끌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아카이브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사안이 되기 때문이다.

아카이브는 근본적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생산했던 문서로, 정치·사회·경제 등의

19) 국립민속박물관은 최근 2년 사이에 '문화의 빛깔들: 100가지로 풀어낸 우리문화의 멋', '소와 함께한 세상이야기 우행(牛行)' 등 다양한 생활 문화사 관련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개인 기증전시자료들로 연출된 '내 삶의 감초, 55년간의 일기', '떠나보낸 시간, 잊혀진 기억'은 일상에 담긴 개인사와 한국 현대와 사회문화 및 정치경제까지 담아내고 있다. '북간도에 세운 이상향, 명동촌'은 당시 이주한인들의 삶과 문화를 조명하였고, '만들어온 땅과 삶, 호남평야 농부 김씨의 한평생'은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에서 일생을 보낸 농가의 삶을 보여 주며 우리 근현대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 이러한 민속아카이브 성격의 생활사 전시사례는 아카이브 전시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http://www.nfm.go.kr/Display/disPast_list.nfm> [cited 2009.12.9] 참조).

20) 해석(interpretation)이란 하나의 유물자체와 유물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물과 유물을 둘러싼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숨겨진 메시지를 제공해주는 행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시기획자는 목표(what)와 목표 관람객(who)를 정한 다음에 전달방법(how)을 결정해야한다(Ambrose, Timothy & Paine, Crispin(이보아 옮김) 2001, 97-102). 『우리 문화 유산 해석하기 Interpreting our Heritage』를 저술한 F. 필든(1957)은 전시물 해석의 6가지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진열·묘사된 전시물을 관람객이 이해하지 못하는 해석은 무익하다. 둘째, 정보는 해석이 아니며, 해석은 정보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전혀 다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해석은 정보를 담고 있다. 셋째, 전시 자료가 역사적·과학적·건축적이든 자료의 해석은 예술이며 여러 다른 예술을 담고 있다. 넷째, 해석의 주된 목적은 가르침이 아니라 자극을 주는 것이다. 다섯째, 해석은 부분보다 전체를 나타내어야 하며, 특정 타깃층보다는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여섯째, 어린이(12세까지)를 대상으로 한 해석은 어른을 위한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며 차별화된 해석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Belcher, Michael(신자은·박윤옥 옮김) 2006, 228-229]. 따라서 전시기획자들의 선결과제는 이러한 전시물 해석방법을 고려하여 항상 관람객에게 적절한 해석매체 활용을 통한 진심어린 공감과 이해를 끌어내는데 있다.

근거가 되는 다양한 기록정보자료와 박물관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문서, 도면, 간행물 등 기록정보자료와 다양한 행정박물은 기록의 범주로 간주되기 때문에(이영학 외 2008), 문서와 더불어 박물관자료를 함께 연출하는 전시는 향후 아카이브 전시의 방향에 긍정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기록정보자료와 박물관자료의 묶음은 다양한 역사적 실체를 촘촘히 보여주는 직접적인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의 전시 서비스의 전반적인 기획, 연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국가기록원의 행정박물류 또는 민간기록물²¹⁾ 등은 전시의 다양성과 전시 내용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 건국 60주년 기념 전시의 비교 분석

3.1. 국가기록원 전시의 구성과 특징

국가기록원은 2008년 국가기록을 통해 건국 60주년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국민과 함께 경축하기 위해 건국 60년 기념 국가기록 특별전 ‘대

한민국’을 개최하였다.²²⁾ 전시는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2008.8.5~8.31(2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전시구성은 건국 60년을 상징해 6개의 존인 ‘1장 국가의 기틀을 놓다 → 2장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다 → 3장 기적의 열매를 맺다 → 4장 민주화를 이룬다 → 5장 세계로 나아가다 → 6장 유엔의 시선으로 본 한국’의 순으로 시계열적으로 전시하였다(그림 4 참조). 전시물은 대한민국 60년의 성장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서, 사진, 영상 기록 등 총 200여 점의 기록물을 전시하였다. 전시구성 시 주안점은 대한민국 60년의 성장과정을 문서, 사진, 영상 등 국가기록을 통해 건국 60년의 역사를 구현하는 것이었다. 관람 흡입력을 고려해 ‘제한헌법 펼쳐보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시 기록 선정은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중립적 관점을 견지하였다. 전시회의 확대 효과를 위해 진행된 순회전은 지역시민과 학생 등을 위해 지역 특화존을 운영하였다.²³⁾

전시 연출은 각 주제별 스토리라인을 따라 시대별 주요문서, 사진자료, 천정 장식, 조감상, 영상 및 그래픽, 설명패널, 보조전시대, LCD

21)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로서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에 대하여는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관리·수집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아카이브 소장 기록물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다[『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08.2.29, 법률제8852호, 2008.8.29, 타법개정) 제43조제44조·제45조·제46조 참조]. 해외 아카이브의 경우에도 스코틀랜드의 아카이브(National Archives of Scotland)는 1937년에 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을 배경으로 스코틀랜드 행정기관, 법원 기록물 이외에 중요 민간기록물도 관리하며, 북아일랜드의 아카이브(Public Record Office Northernland) 역시 1923년에 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북아일랜드 자치정부, 법원, 그리고 각 County의 기록물을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민간소장 중요기록물이 아카이브 기록의 범주에 포함되어 국가 중요 역사기록물로 수집·보존되고 있다(김정하 2007, 310).

22) 전시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실내전시(2008.8.5~8.31)와 대전 정부대전청사 2동(9.9~9.26), 광주시청 1층 시민홀(9.23~10.10), 부산시청 1층 로비(10.7~10.24)의 순회전을 병행하였다. 여기에서는 국립민속박물관의 특별전과 비교하기 위해 실내전시를 중심으로 전시내용을 검토하였다.

23) 국가기록원의 특별전 주요내용은 ‘건국 60년 기념 국가기록 특별전 개최 결과(기록편찬문화과 2008.11)’ 내부문서를 참조하였다.



〈그림 4〉 '건국 60년 기념 대한민국전' 전시연출 모습

등을 활용하였다. 기록물에 포커스를 맞춰 국
가기록을 통해 대한민국 60년의 성장과정을 보
여주고자 하였다. 주제별 전시 연출 구성 내용

은 다음과 같다(표 6 참조).²⁴⁾
전시스토리 라인은 60년의 시간 동안 대한민
국의 성장과정을 여섯 가지 주제로 되짚어 보

〈표 6〉 주제별 전시연출

구 분	구성 내용
도입부	→ 전시 개괄, 6개의 상징조형물을 활용하는 ATTRACTION, PDP 영상 설치
1장 국가의 기틀을 놓다	→ 1948년부터 1950년 전쟁 이전까지 국가의 초석을 다지는 각종 기록물 전시 → 천정 배너(태극기) 이용한 터널형태 공간 구성
2장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다	→ 한국전쟁, 국토재건 등 고난과 역경극복 모습을 문서와 사진, 동영상으로 구성
3장 기적의 열매를 맺다	→ 1960년대~70년대 경제개발과 새마을 운동, 고속도로 개발, 유류 파동, 6·3항쟁 등 기적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을 보여줌 → 새마을운동과 경제개발 관련 문서, 이미지, 행정박물
4장 민주화를 이루다	→ 1980년대의 민주화 과정을 담담히 보여줌 → 광주민주화 항쟁, 북방외교, 88올림픽 등 관련 문서, 이미지, 행정박물 등
5장 세계로 나아가다	→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의 발전상을 그림 → 남북관계, 금융실명제, IMF 자료, 대전 엑스포, 월드컵, 부산아시아게임, OECD, ASEM, APEC 등과 관련된 문서, 이미지, 행정박물(포스터, 입장권) 등
6장 UN의 시선으로 본 한국	→ 건국 초기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변화 모습을 UN사진아카이브 자료로 활용 → 한국전쟁, UN연합군 환영 플랜카드, UN 활동 등 사진과 60여장의 슬라이드

24) 건국 60년 특별전 초기 연출의 방향은 기획초기 건국동이를 소재로 '건국동이 60년의 삶-희망의 기억'이란 제목으로 현대 한국사의 격랑속에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발전되어 왔는지를 조망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하지만 전시진행과정에서 건국 60년 기념사업이 국가적 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시 기본방향이 '대한민국 60년 성장과정의 국가기록'에 포커스를 맞춰 '대한민국 성장보고서-웅비'로 변경되고 전시연출 기본방향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진행되었다[건국 60주년 기념 특별전 추진계획(홍보기획팀 2008.4); 건국 60년 기념 "특별전시회" 수정계획(안) 보고(기록편찬문화과 2008.5)].

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의 기
 틀을 잡아나가고, 연이은 전쟁과 폐허 속 역경
 극복, 경제개발, 광주 민주화운동과 해외자율화,
 88올림픽, 남북간의 화해와 교류협력, OECD,
 ASEM, APEC, 피원조국에서 원조국으로 변
 모한 대한민국의 발전된 현재 등 일련의 과정
 을 순서대로 보여주었다.

전시연출은 각 주제별 전시 스토리 라인을
 따라 문서 및 사진 자료의 복합구성으로 시대
 상을 표현하고 있으며, 패널 및 투명소재를 활
 용하여 레이어를 구성하여 평면 오브제의 입체
 화를 시도하였다.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기존
 쇼케이스를 활용하되 독립장을 벽면에 매입하
 여 상설전시관 형태로 연출하고 있다. 다소 산
 만해 보일 수 있는 독립장을 깔끔하게 처리하
 고 관람객들이 편안한 느낌으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태
 극기를 소재로 천정배너를 이용한 터널형태의
 이색적인 공간 구성, 행정박물(우표, 입장권,
 올림픽 성화봉 등)을 활용한 문서와 묶음 전시
 연출, 벽면의 아크릴 액자를 활용한 문서의 입
 체적 연출 등 기록의 평면성을 극복하기위해
 다양한 기법을 시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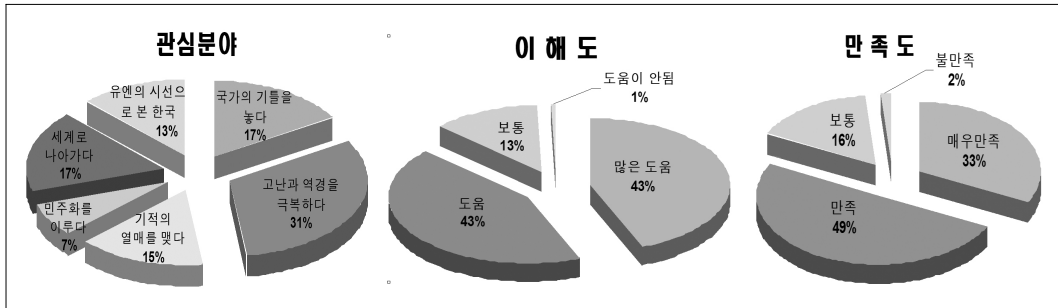
전시 동선은 한방향(one way) 동선을 채택
 하여 시대별 순차적으로 전시하며 스토리 전개
 를 고려하여 구조물 활용에 의한 중복동선을
 배제하였다. 디자인 방향은 공간구성과 연계하
 여 공간의 형태와 COLOR 및 그래픽 요소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시대별 구분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코너별 주조색을 설정하여 전시
 공간을 시각적으로 구분하였고, 공간 배분 및

구성을 관람 진행방향에서 다음 전시 공간을
 시각적으로 차단하여 기대감을 증폭시키도록
 구성하였다.²⁵⁾

관람객은 총 49,888명(1일 평균 2,100명)이
 었으며, 관람객 평가는 특별전 관람을 마친 관
 람객 200명을 대상으로 2008.8.5~8.31까지
 설문지 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직업, 홍보효과, 관심분야, 전시회 이해도 및
 만족도(그림 5 참조) 등이었다. 직업별로는 학
 생(50%), 일반(42%)순이었고, 전시회를 알게
 된 경로는 기관방문자(26%), 인터넷(25%) 지
 인소개(19%) 순으로 집계 되었다. 이처럼 학
 생들의 참여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향후 학
 생들을 배려한 전시기획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
 로 보여지며, 기관을 방문하여 우연히 전시회
 를 관람한 경우는 아카이브 전시홍보에 유의할
 사항으로 간주된다. 전시회 코너 가운데 관람
 객의 관심도는 국가 위기 극복과정을 담은 '고
 난과 역경을 극복하다(31%)'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국가의 기틀을 놓다(17%), 세계로
 나아가다(17%), 기적의 열매를 맺다(15%) 순
 이었다. 국가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86%) 및 전시회 만족도(82%)는 상당히 높
 았으므로, 이 점은 향후 국가기록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시회를 다양하게 진행시켜야 할 요인
 으로 생각된다. 한편 관람객을 위한 별도의 전
 시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고, 요청 시
 전시진행요원들이 전시설명을 하는 것으로 대
 체하였다.

특별전의 종합성과는 '대한민국 60년 성장과
 정의 기록 재현, 지난 60년의 역사를 국민과 함

25) 전시연출의 주요내용은 건국 60년 기념 특별전시회(실내전시) 제안서(2008. 6)와 내부 사진자료를 참조하였다.



〈그림 5〉 관람객 관심분야, 전시 이해도 및 전시만족도

게 공유하고 특히 학생들에게 교육과 기록문화체험이라는 지적 학습효과 제공, 아카이브 전시의 한 사례로서 타기관 벤치마킹 및 전시관 조성' 등으로 정리된다.²⁶⁾

기록전시회의 교육적 효과와 건국 60년 기념 행사로서의 의미 부각, 다른 기관의 기록 전시의 모범사례로서 본연의 역할을 이행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시구성 및 연출 부분에서 아카이브 전시의 강점인 주제형 전시 구성과 기록정보자료와 행정박물의 묶음 전시연출 시도 등은 아카이브 전시의 가능성을 충분히 발휘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전시물 대부분이 국가정책기록물이기 때문에 관람객은 패널의 해설문을 꼼꼼히 읽어 내려가야만 전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전시주제가 '대한민국의 성장기'인 이유로 관람 이후 관람객 각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꺼리 제공이 부족하였다. 전시연출 부분은 다각도로 기록전시의 평면성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으나 다양한 시각적 매체 및 체험설치물 부족으로 전시 자체

의 역동성은 부족하였다. 그리고 기록전시회는 특히, 전시 기록물의 이해를 위해 차별화된 전시물 해석 프로그램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전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특별전은 이러한 전시 연출의 보완점과 관람객 중심 교육서비스의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물의 전시'라는 매력 앞에 관람객들이 기록물이 지닌 진정성·역사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에 그 자체로 상당히 의미 있는 전시였다.

3.2.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의 구성과 특징

국립민속박물관은 2008년 건국 60년을 기념하여 60년간의 주인공으로 살아온 한국인의 삶을 생활문화자료를 통해 재조명하기 위해 건국 60년 기념 특별전 '그 고난과 영광의 순간들'을 개최하였다. 2008.7.29~9.15(49일간)의 일정으로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I, II, 로비 등에서 진행되었다.

건국 60년을 맞아 지난 60년이라는 시간과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온 한국인들의 다

26) 국가기록원 전시결과보고서의 종합평가를 인용하였다.

양한 생활모습을 되짚어보고자 ‘우리나라, 우리의 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추억’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분하여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속에서 살아있는, 현재를 만들어간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있다. 전시 줄거리는 ‘60년 주역 국민(우리) → 우리가 지키고 되찾은 나라(광복, 건국, 전쟁) → 우리가 일구고 가꾼 나라(발전) → 우리가 살아온 삶(생활상) → 우리가 향유했던 문화(대중문화·유행) → 우리의 추억(체험)’으로 엮였으며 그래픽 영상과 음악 퍼포먼스를 결합한 공연도 함께 진행하였다. 전시자료 총 496건 603점으로, 도입부와 5개의 존으로 구분하여 전시구성을 하였다.²⁷⁾ 전시 연출은 각 주제별 스토리라인을 따라 생활속 유물, 영상, 패널, 멀티미디어

체험, 인터랙티브 영상, 모형, 슈퍼그래픽 등 다양한 전시기법을 활용하였다(그림 6 참조). 특히 멀티미디어 및 영상연출에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였다. 주제별 전시 연출은 60년의 시간과 그 시간속의 주인공으로 살아온 한국인의 삶의 모습을 다섯 가지 주제로 되짚어 보고 있다(표 7 참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되찾은 나라에 대한민국이란 이름을 붙이고, 전쟁과 폐허의 시공간 속에서 나라의 기틀을 닦고, 어렵고 고된 시절을 살아내며, 흑백 사진과 같은 행복의 순간들과 그것을 추억하는 일련의 과정이 순서대로 제시되었다.

주요 전시물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하게 보아왔던 기억 속의 생활용품들을 활용하여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을 자

〈표 7〉 주제별 전시 연출

구분	구성 내용
도입 존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 60년의 이야기 → 독립과 광복, 일제강점기, 전쟁의 소용돌이, 2002년 광화문 등 60년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우리들의 일상
1부: 우리나라	우리 마음속의 나라 → 헌법제정, 정부수립기념식 장면 등 당시인들의 생각과 현대의 우리에게 의미하는 나라의 의미에 대해 질문 던짐
2부: 우리의 땀	수출 백억불을 세우다 → 국가가 주도한 캠페인관련 자료, 일상 속 생활도구 섹션, 60년간의 정보그래픽 패널, 100억불 수출 기념탑 재현, 시대영상을 통해 우리의땀이 만들어낸 가치와 풍경을 회상함
3부: 우리의 생활	단별신사 아버지와 딸표 사이다 → 기억되지 않는 개인삶의 모습들...담담하게 미소지을 정도의 기억으로 남아 있는 단별신사 아버지와 딸표 사이다. 구명난 양은 냄비, 포니자동차 등 일상생활 기억속의 생활용품과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모습으로 구성함
4부: 우리의 시간	사라진 것, 남은 것 → 지난 60년간의 시간은 공존의 모습임. 금성TV, 벽돌만한 휴대전화 등 현재속에 남아있는 과거와 현재를 만들어낸 과거의 모습을 보여줌.
5부: 우리의 추억	그 음악의 다방 DJ가 돌아왔다 → 추억의 만화코너, DJ다방 등 영상과 음향으로 구성된 70-80년대의 추억거리들을 모음

27)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의 협조로, ‘건국 60년 기념 특별전 결과보고서(2008)’를 참조하여 특별전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도입부(대형 태극기 연출)

‘우리의 땀’ 존(수출백역불 기념탑 모형)

‘우리의 생활’ 존(안방 모습)

〈그림 6〉 건국 60년 기념 ‘그 고난과 영광의 순간들’ 전시연출 모습

연스럽게 떠 올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5부 우리의 추억’은 ‘추억의 만화영화, 60년 감동의 스포츠, 동영상 매직아이, DJ가 되어 보자’ 등 4개의 코너로 구성하여 멀티미디어로 연출하고 있다(그림 7 참조). 추억의 만화영화코너는 전자오락실의 오락기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70년대 인기를 끌었던 로봇대권브이와 톨이장군, 마루치 아라치 등의 만화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작은 영화관이었다. 60년간의 감동의 스포츠 코너는 터치스크린을 활용하여 60년간의 대표적인 스포츠 순간 영상들을 찾아볼 수 있는 코너로, 동영상 매직아이는 정지된 화상속에서 새로운 화상이 보이도록 한 기술을 응용하여 동영상에 튀어나오게 한 영상물이었다. DJ 코너에

서는 70-80년대의 음악다방의 DJ 박스를 재현해 그 안에서 흘러간 과거의 노래들을 선택적으로 들어볼 수 있게 만든 음향 청취 공간이었다. 이처럼 다양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관람객들이 그 시절을 흥미롭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관람에 재미를 더하였다.

아울러 별도의 전시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람객에 대한 전시의 이해와 흥미를 높였다. 특별전의 전시 이해에 도움을 주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하면서, 가족의 여가 생활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민속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전시 관람을 위한 활동지(워크시트)를 제공하여 전시내용의 간접교육기능까지 확대하였다. 전시교육명은 고무신 신고 옛날 여



(추억의 뽕튀기 인터랙티브 영상)

(DJ 코너)

(만화영화 코너)

〈그림 7〉 ‘우리의 추억’ 멀티미디어 및 DJ 코너 전시연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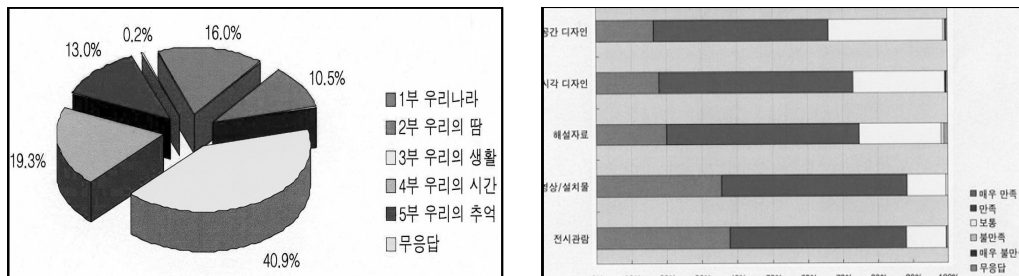
〈표 8〉 전시교육 프로그램

교육명	교육 및 학습내용	대상	횟수
고무신 신고 옛날 여행!	전시설명 통한 전시 이해 → 고무신을 갈아신고 전시탐험 → 활동지를 통해 전시유물 자세히 보기	유치원 초등생	60회
3대가 함께하는 추억의 교실	1950년대~70년대 교실에서 음악과 국어(사회) 수업 체험 → 음악시간: 풍금에 맞춰 동요를 부름, 엄마·아빠 때 배웠던 노래와 요즘 배우는 노래 비교 → 국어시간: 책 읽어보기, 엄마·아빠 학교 다닐 때 이야기 들어보기 등	초등생 (가족)	4회
친구야 노~올자	전래놀이 장난감 만들기과 친구들과 전래놀이 하기 → 우리 엄마, 아빠는 뭘하며 놀았을까? → 물총, 딱지, 소리통, 원반날리기 → 망쥬기, 비석치기, 망개총 쏘기, 지게목발 걷기 등	초등생	4회
계			68회

행!, 3대가 함께하는 추억의 교실, 친구야 노~올자! 등이었다. 교육기간은 2008.8.6~9.14일까지 유치원생, 초등학생 및 가족관람객 등 총 1,176명이 참가하였다. 전시 교육프로그램 개요는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관람객은 총 297,801명(1일 평균 7,091명/ 휴관일 제외)이었으며, 관람객 평가는 특별전 관람을 마친 관람객 486명을 대상으로 2008.8.21~8.31일까지 설문지 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그림 8 참조).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설문응답자 총 486명 중 여성 346명, 남성 140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남성의 약 2.5배

정도였다. 연령분포도는 30대가 30.9%, 10대가 27.8%로 30대와 10대가 50%이상을 점유하였다. 특별전에 대한 만족도는 전시관람, 영상·설치물, 해설자료, 공간 디자인, 시각디자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설문 응답자들이 대부분 긍정적인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응답자의 40.9%가 '3부 우리의 생활'을 가장 인상 깊은 주제로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4부 우리의 시간', '1부 우리나라', '2부 우리의 땀' 순이었다. 인상전시 유물을 묻는 질문에 많은 관람객들이 영상이나 체험, 시설물로 대답하여 전시 유물 이외에도 영상·체험 설치물이 강한 인상



〈그림 8〉 전시 관심분야 및 전시 만족도 분포도

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가장 인상적인 전시물로는 'TV', '무엇에 쓰는 물건', '부엌모습 및 부엌용품' 등을 꼽았다.²⁸⁾ 박물관 방문경험은 1회(처음)가 48.4%, 전시회를 알게 된 경로는 우연히 들렀다가 61.3%, 전시관람 만족도는 '흥미롭다'가 50%, 전시 차별성은 '전시 영상 및 체험물'이 47.7%로 가장 높았고, 가장 인상 깊었던 영상·설치물로 '추억의 뽕튀기(그림 8 참조)'를, 관람의 불편사항은 '관람방향'을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이외에 전시공간 디자인, 전시 시각디자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설문항목으로 조사하여 각 전시분야별로 관람객의 다양한 피드백을 구하고 있다.

전시 종합평가는 차후 구비·보완되어야 할 요소와 긍정적 지적으로 요약된다. 먼저 보완되어야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전시 자료에 대한 관람객의 호응과 관심에 부응하여 향후 중소형 규모의 세부 주제별, 영역별 전시 계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500점이 넘는 다량의 전시자료로 인해 개별 전시자료의 분석 및 전시반영이 미흡하였으므로 향후 '전시 자료 조사- 전시 반영' 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보강이 필요하다. 셋째, 멀티미디어 영상설치물의 활용으로 현대적인 느낌의 전시분위기를 연출하였지만 일부 전시 유물에 상대적으로 시선이 덜 가는 부분적인 부작용이 발생하여 향후 전시에서는 전시보조물의 활용과 전시 유물의 적절한 안배와 조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민속박물관 소장 자료 중 소품류를 중심으로 전시가 이루어졌으며 향후 대형 전시물 수집 및 전시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기타 사항으로는 전시 안내 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전시 교육 및 안전교육 강화, 전시 홍보를 위한 사이버 갤러리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다.

긍정적 지적은 다음과 같다. 유물중심 전시에 미디어 기술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생활상 주제 전시를 효과적으로 구성하여 생활상 주제 전시의 연출기법을 업그레이드 하였고,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중인 현재 관련 전시 자료 및 정보를 구축·활용하고 현대 생활사 전시의 다변화를 시도하여 현대사 전시 분야의 영역을 넓혀간 점은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국립민속박물관 전시는 일상(日常)을 주제로, 유형의 자료를 엮었다는 점에서 흥미·재미·교육 등 박물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였다. 그러나 추상적인 주제설정과 전시내용의 시기구분·전시자료 선별 등이 명확하지 못했던 것은 좀 더 촘촘한 전시내용 영역을 설정해야하는 과제를 남겼다. 또한 각 전시영역별로 주제형 키워드를 선별하고, 특화영역의 구축이 관람객을 위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전시결과보고서에서도 제시되듯이, 전시 주제에 대한 해석과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관람객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전시를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 자료를 정하기 위해서는 선별·내용·한계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3.3 비교 분석

위에서 국가기록원과 국립민속박물관의 전

28) 앞의 보고서 중 「건국 60년 기념 특별전 그 고난과 영광의 순간들, 관람객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참조.

국 60년 기념전시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향후 국가기록원 전시의 보완사항을 고려하면서 비교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종합 정리하였다.

첫째, 전시 주제는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지난 60년 동안 한국인의 삶을 조명하는 것으로 국민과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택한 반면, 국가기록원은 지난 6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성장기를 조명하는 것으로 관람객들에게는 다소 무거운 소재였다. 따라서 관람객들이 전시 관람 이후 개인적인 경험과 집단경험을 상호 소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끼리를 제공한 전자의 전시회는 후자의 전시에 비해 훨씬 쉽게 관람객들의 감성을 자극하였다. 관람객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경험과 집단적인 경험을 함께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시에 흥미를 보이는 경향이 높으므로 향후 아카이브 전시 영역에 박물관의 생활사 영역의 전시 기획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람객의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생활사 영역의 특정주제를 기획하였으나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박물관과 함께 공동전시를 기획하는 것도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전시 전문영역을 넓혀나갈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전시물은 기관 소장 자료를 중심으로 활용하되, 기관의 특성에 맞춰 국립민속박물관은 생활문화자료를 중심으로, 기록원은 국가기록물을 중심으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의 소장품은 아카이브를 비롯해서 모든 자료가 유물로 등록되어 있으며, 아카이브는 문서를 중심으로, 민간기록·행정박물관 등으로 구분되는데, 양자의 접목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문서를

본령으로 하는 아카이브 기관의 기록은 다양한 시청각 매체, 문서 생산과 관련된 직·간접적 유형물, 대중적 정책자료, 간행물, 전달 매체 등 시기구분과 역사이해의 영역에서 핵심자료 혹은 보완자료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박물관 전시 사례를 참조하여 향후 아카이브 전시는 문서만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주제 및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아카이브 관련 자료 묶음으로 전시를 엮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정 시대나 주제를 기준으로 주제형 전시를 꾸밀 경우, 정치, 사회 등 영역형(분야형) 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전시는 궁극적으로 시기, 시대, 공간을 망라하는 광역형의 전시로 나아가는 바탕이 될 수 있다.

셋째, 전시 연출은 국립민속박물관의 경우, 다양한 멀티미디어 및 영상 연출에 상당부분을 할애하여 관람객의 흥미로운 관람과 시각적 이미지를 충족시킨 반면, 국가기록원의 연출은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활용 대신 기록물의 내용적 이해에 중점을 두어 역동감 있는 연출기법은 다소 미흡하였다.

최근 정보화 사회에 있어 인터넷, 디지털, 멀티미디어 등의 기술적 발전과 확산은 박물관 전시분야에 새로운 방식의 전시 커뮤니케이션, 전시 매체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며 열린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²⁹⁾ 이러한 부분은 아카이브 전시연출 분야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문서의 평면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적 연출의 보완이 아카이브 전시에 적극 수용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시교육프로그램은 에듀테인먼트(Edu-

29) 이보아는 모바일 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박물관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사례로 데이트 모던 미술관의 멀티미디어 투어와 국립중앙박물관의 모바일 PDA 전시 안내 보급 시스템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이보아 2006, 23-47).

tainment)³⁰⁾적 효과를 부여하여 전시물과 관람자간의 지적 교류를 의미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관람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적 태도를 강화 또는 변용시킬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제공한다. 국립민속박물관은 3개의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절히 전시교육과 전시홍보에 활용하였지만 국가기록원은 별도의 전시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하였다.

박물관은 봉사기능으로 전시와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 전시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되고 있다. 어린이 대상, 가족단위 관람객 대상, 일반인 대상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학습 도구 개발 등 교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아카이브 기관도 고객(관람객) 중심의 차별화된 교육서비스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기록물의 경우는 전시기록물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이므로 다양한 전시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전시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여나갈 필요성이 있다.

체험아이템의 경우, 국립민속박물관은 멀티미디어 경험, 모형 체험, 사진체험, DJ 체험 등 당시의 생활상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টে을 준비하였지만, 국가기록원의 경우는 제한헌법 펼쳐 보기 등 단순한 아이টে으로 전시체험보다는 기록을 보여주는데 중점을 두었다. 관람객은 전시에 능동적으로 체험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전시스토리를 쉽게 이해하

고 교육적 효과도 제고되므로 다양한 기록문화 체험아이টে 개발은 아카이브 전시의 새로운 과제로 들 수 있다.

다섯째, 전시설문지 조사의 경우, 기관의 관심도에 따라 조사항목이나 구성이 달라지는데,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관람객 대상을 성별과 나이를 기준 삼아 전시회 자체에 대한 세분화된 설문항목(전시관람, 영상/설치물, 해설자료, 공간디자인, 시각디자인 등) 구성으로 전시만족도에 특히 중점을 두었다. 반면에 국가기록원은 관람객 대상을 직업으로 구분하여 전시회 자체에 대한 분석 보다는 전체 전시의 만족도 즉 전시성과에 치중하였다.

대부분의 박물관은 고객과의 접점으로 온·오프라인 서비스와 체험코너, 피드백 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일방적 서비스에서 쌍방향 대화형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물관의 근본적 목적은 자체의 정체성 차원에서 수집, 보존, 연구 등을 가지고 있으며, 봉사기능으로 전시와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전시와 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되고 있으며, 자료의 전달매체를 통해, 고객층 하나하나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아카이브 기관도 고객(관람객) 중심의 서비스 전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관람객의 관심거리를 찾아낼 때, 아카이브 기관의 문화적, 사회적 봉사영역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³¹⁾ 그리고 추후 전시회에 대한 관

30) 에듀테인먼트(Eduainment)는 교육에 재미라는 요소를 결합시킴으로써 학습자의 참여와 흥미를 유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다(안성혜·윤세진 2007. 2).

31) 이보아는 “박물관이 폐쇄적인 공간이 아닌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수요자 중심의 기획방향에 주력하면서 ‘박물관과 관람객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커뮤니케이터로서 유물과 관람객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박물관과 관람객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활동에 주목하고 관람객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는 등 관람객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해야 하며, 관람객 중심의 사고와 전환과 함께 관람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조하였다(이보아 2001. 79-93).

람객의 피드백(feed-back)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전시회 자체에 대한 설문지의 조사항목, 조사기간, 조사인원, 조사기법 보완 등 관람객 설문조사 기법을 보완하고 향후 아카이브 전시 기획에 관람객의 요구사항 및 전시보완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전시결과보고서는 작성취지에 따라 그 내용이나 구성이 달라지는데, 국립민속박물관은 전시성과 이외에 추후 전시기획 시 직접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시회 자체에 대한 분석 및 보완사항에 중점을 두어 세밀하게 작성한 반면, 국가기록원은 전시회의 성과에 치중하여 전시회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부족하다. 따라서 추후 전시기획에 반영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전시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전시회 자체에 대한 분석부분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박물관 전시의 긍정적 측면들로 정리된 '다양한 멀티미디어의 활용 등 시각적 전시연출 기법 보완, 관람객 사전 분석을 통한 친밀감 있는 전시 주제 및 전시 구성, 다양한 체험아이템 확보, 전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전시교육프로그램 구성, 전시회 실제 평가를 충분히 고려한 전시결과 보고서 작성, 관람객의 피드백(feed-back) 강화와 적극적 반영'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향후 아카이브 전시기획 시심층적으로 고려한다면 훨씬 더 흥미로운 아카이브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아카이브 전시의 현재와 실재를 검토해 보았다. 실제로 이 가운데 많은 부분이 이미

지적되어 왔으며, 실무영역에서도 철실히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박물관과 비교하여 아카이브 전시는 아카이브(기록)의 특성 상 기록을 통한 정보제공능력과 주제중심으로 전시를 엮어내는 주제형 키워드 전시 연출에 상당히 유리한 반면, 이미 전시분야에 전문영역을 축적하고 있는 박물관의 전시교육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전시 연출 분야, 전시 실무 분야 등은 기록전시 영역에서 배워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위에서 검토한 아카이브 전시의 현황과 일반적인 특성 및 아카이브와 박물관 전시의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아카이브 전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향과 결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첫째, 전시 기획, 연출, 홍보 등 전시분야별로 뚜렷한 목표 고객이 설정되어야 하고, 박물관 전시처럼 아카이브 전시도 재미와 흥미를 제공해야만 한다. 많은 고객을 유인하는 것은 전시의 가장 중요한 명제이자 성패가 되는 관건이 되기도 한다. 고객중심의 전시를 진행하기 위해 전시분야별로 설문, 인터뷰 등 다양한 조사 기법을 동원하여 목표고객 설정을 위한 사전 조사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후 목표고객이 설정되면 이에 따라 전시자료와 주제선정, 전시교육프로그램, 전시연출 등 고객들의 각 분야별 희망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전시 기획시 현대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춘 최근의 박물관·미술관의 디자인 트렌드(trend)를 반영하고, 아카이브 전시의 평이성을 극복하기 위해 흥미와 재미가 있는 전시연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기록문서는 특히, 기록에 대한 해석(interpretation)이 필요하므로 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해석매체로서

이러한 시각 매체들을 활용하여 관람객들이 전시물과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다만, 전시 연출 과정에서 시각적 이미지 과잉전달로 인해 기록물 본래의 맥락을 손상키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둘째, 아카이브 전시의 집중도와 공감도를 높이기 위해 적절한 수의 메시지 전달과 이에 적합한 전시 주제와 대상설정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카이브 전시가 일반 공공박물관처럼 대중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박물관전시와 비교하여 다른 선결조건이 있다. 본문에서 언급했지만, 아카이브는 주로 문서 중심의 정책 자료들이 대다수 이므로 기획자는 전시주제와 대상설정에 상당한 고심을 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문서 전시물의 밀도가 지나치게 높거나 전달하는 메시지가 많으면 관람객들은 오히려 전시물에 집중하기 어렵고 전시회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문서와 이를 보완하는 자료들을 적절히 배치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관람객이 이해하기 쉬운 정책적 키워드의 배치를 적절히 배분하여 전시 스토리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따분한 기록전시에서 재미난 전시로의 지향을 항상 고민하고, 지나치게 많은 내용을 전달하려는 내용위주 전달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 주제형 전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문서자료들은 전달내용이 많기 때문에, 고객들이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정 주제로 한정하여, 주제별 전시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모든 분야의 모든 문서를 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분야를 기념하거나 시기에 맞추어 기획전을 개최하는 것이 전시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기본적인 역사지식을 갖추고 있으므로 역사교과서나 일반 역사개론서 등에서 중요한 개념을 포착하여 이를 범주화한 주제 선정도 적절할 것이다. 일례로, 국가기록원이 주최했던 '구호전'은 '한국전쟁, 경제개발, 새마을, 가족계획 및 혼분식' 등 4개의 주제만을 중심으로 다루어 대부분 국민들이 친숙한 용어로 시대맥락을 통해서 풀었기 때문에 관람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기간 일정한 주제와 근거를 가진 문서는 역사적 맥락을 보여주는 1차 사료가 된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박물관 역시 전시를 포괄적으로 엮어 가는데 필수적인 자료로 전시 효과 달성에 적합하다. 이러한 다양한 문서 자료의 강점은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살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므로 문서자료의 유기적 구조(개요-과정-결과)가 반영된 전시 자료를 우선 선별하여 전시 효과를 높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전시 종료 후 관람객의 피드백(feedback)을 반드시 반영하여 다음 전시를 기획해야 한다. 전시 종료 후 관람객 피드백의 수용은, 이후 전시를 위한 문제점과 향후 방향을 점검하는데 필요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박물관에서는 그러한 피드백 체제가 갖추어져 있으나, 실질적으로 향후 전시에 반영되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아카이브 전시도 그러한 점을 반영하여, 피드백을 통한 관람객의 소리를 듣는데 과감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온·오프라

인 경로를 통해 관람객과의 접점이 더욱 좁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전시 교육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교육프로그램은 관람객의 유치 및 아카이브 전시 마케팅의 중요한 도구로 관람객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다. 교육프로그램은 관람객에게 아카이브 전시에 대한 관심과 신뢰감, 긍정적 인상 등을 유도하여 아카이브에 대한 대중적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아카이브는 전시 기획 초기 단계부터 어린이, 학생, 일반인, 가족관람객 등 관람객 유형별로 지적수준 및 관심사항을 고려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록전시회는 기록전시에 대한 선입견을 지양하기 위해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국내의 공공박물관은 박물관의 벤처마킹과 관람객의 저변확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로 교육프로그램을 인식하고 교육전문가(Educator)를 채용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연구·개발하고 다양한 아이টে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박물관의 교육 서비스 영역 확대에 중추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아카이브 역시 비단 전시교육프로그램 운영의 측면뿐만 아니라 아웃리치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도 교육프로그램을 전달할 교육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예산의 별도 증원, 조직개편 등 조직운영 부분에 획기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아카이브 소장 근·현대 자료에 대한 중립적 해석을 지향하고, 생활·문화사 관련 정책자료 중심으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카이브 기관에서 소장한 근·현대 자료를 전시함에 있어 가장 유의할 점은 자료 해석 부분이다.³²⁾ 대부분 내용 중심의 전달이기 때문에, 전시 대상 기록을 선정함에 있어 기획자의 주관적 의도가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특히 근·현대 기록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이 많고, 동시대의 역사해석에서 기획자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되기도 한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생활사나 문화사 관련 정책 자료들을 중심으로 전시를 이끌어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 일부 코너에 정책자료(무거운 자료)를 제시하여, 기획자가 전시하고자 하는 주제의 간접적인 영역으로 제공하면, 자료의 무게감을 덜 수 있다고 본다.

아카이브를 특정한 주제에 얽어 국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전시는 역사의 증거를 보여주고, 이해를 돕는 일종의 소통의 기회가 된다. 아쉽게도 대부분의 박물관에서는 수집, 연구 등이 어느 정도 진척된 자료나 역사적으로 충돌되지 않는 자료들을 전시하지만 아카이브 전시는 가까운 과거에 생산된 정책 자료들이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이나 용어설정, 패널내용 등에서 기획자의 의도를 무너뜨리곤 한다. 따라서 기획자는 반드시 그러한 경향성을 가진 문서들은 연구나 증빙 등의 기초자료로 확인과 점검을 해야만 한다.

32) Bradsher and Ritenthaler는 “역사가 과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인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한 견해의 표현형태가 전시회이며, 전시회는 사실에 입각해야 하고 진실해야 한다. 역사적인 정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권하고 있다(Bradsher & Ritenthaler, 1988, 231-233).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화적 근거 문서들과 다양한 행정자료들은 아카이브 전시를 풍성하게 할 수 있으며, 정책문서와 더불어 다양한 행정박물 등은 문서의 맥락을 더욱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시의 목적과 관람객 이해를 돕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자료는 아카이브 전시의 단점이 아니라 전시를 돋보이게 하는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2009. 『국가기록원 40년사』, 대전: 국가기록원.
-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2008. 건국 60년 기념 특별전시회 수정계획(안) 보고, 대전: 국가기록원, 2008.5(내부문서).
-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2008. 건국 60년 기념 국가기록 특별전 개최 결과 보고, 대전: 국가기록원, 2008.11.5(내부문서).
-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2008. 건국 60년 기념 특별전시회(실내전시) 제안서, 대전: 국가기록원, 2008.6(내부문서).
-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2009. 구호로 보는 시대 풍경전 결과 보고, 대전: 국가기록원, 2009.1(내부문서).
-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2009. 국가기록원 40년 기념 기획전 기본 계획(안), 대전: 국가기록원, 2009.4(내부문서).
- 국가기록원 기록편찬문화과. 2009. 대한민국 희망기록전 결과 보고, 대전: 국가기록원, 2009.6(내부문서).
- 국가기록원. 2008. 기록관리 이제는 서비스다. 『기록인』, 여름호(vol.3): 8-47.
- 국가기록원 홍보기획팀. 2008. 건국 60주년 기념 특별전 추진계획, 대전: 국가기록원, 2008.8(내부문서).
- 국립민속박물관. 2008. 건국 60년 기념 특별전 결과보고서,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2008(내부문서).
- 기현정. 2008. 박물관의 시각문화 소통과 시각적 문해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역사·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상호. 1998. 기록보존소의 홍보프로그램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연구』, 5(1): 465-485.
- 김주연, 김성일. 2003. 뮤지엄 전시디자인 평가 방식 및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40: 117-125.
- 김진숙. 2007. 아카이브 전시 환경표준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기록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대통령기록관 연구서비스과. 2009. 『선물과 유품으로 만나는 박정희 특별전 도록』,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 대통령기록관 연구서비스과. 2009. 대통령기록물 기증 특별전 개최 결과 보고, 대전: 국가기록원 2009.10(내부문서).

- 설문원. 2008. 기록정보서비스의 방향과 과제. 『기록인』, 여름호(Vol.3): 11-19.
- 안성혜 등. 2007. 어린이를 위한 박물관의 체험 학습 프로그램 사례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2007 춘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5(1): 19-23.
- 연세기록보존소. 2008. 『연세대학교 역사지킴이 10년의 활동』, 서울: 연세기록보존소.
- 양은영. 200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이용제공 전략 연구, 명지대학교 기록과 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훈·김재훈. 2006.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기록관 역사기록전시-기록으로 보는 한국불교와 조계종. 『기록학연구』, 13: 287-320.
- 이보아. 2001. 21세기 박물관 경영의 현황과 과제-박물관과 커뮤니케이션. 『예술경영연구』, 1: 79-96.
- 이선희. 2009. 기록의 전시에 관한 연구, 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영학 외. 2008. 행정박물의 유형분류 및 선별방안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17: 115-156.
- 이원규. 2005. 연세기록보존소 전시업무 사례보고. 제39회 월례연구발표회. 한국기록학회.
- 이혜원. 2007. 기록관 전시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 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희숙. 2004. 인터넷을 통한 기록관의 서비스 활동에 관한 연구-교육·전시활동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기록과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북대학교 박물관. 2008. 2008년 전북 도정기록 특별전, '기록으로 본 전라북도 희망일기' 전시추진계획. 전북: 전북대학교박물관, 2008.3(내부문서).
- 정은진. 2007.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공공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Ambrose, Timothy & Crispin Paine. 2001. 『실무자를 위한 박물관 경영핸드북』, 이보아 옮김. 서울: 학고재. 원전: Museum Basics, 1993.
- Dean, David. 1998. 『미술관 전시, 이론에서 실천까지』, 전승보 옮김. 서울: 학고재. 원전: Museum Exhibition Theory & Practice, 1994.
- Pederson, Ann E. & Gail Farr Casterline. 1982. *Archives & Manuscripts: Public Programs*.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2004. *The Glossary of Archival & Records Terminology*.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Verhaar, Jan & Han Meeter. 1989. *Project Model Exhibitions*. Holland: Reinwardt Academie.
- Bradsher, James Gregory & Mary Lynn Rithenthaler. 1988. Archival Exhibits. *In Managing archives and archival institutions* edited by Bradsher, James

Gregory Bradsher. Universty of Chicago Press.

Dearstyne, Bruce W. 1994. Archival Reference and Outreach: Toward a New Paradigm. In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and Manuscripts*, New York · London: Haworth Press Inc.

〈법 령〉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박물관 및 미술진흥법』.

〈참고 사이트〉

국립민속박물관 [cited 2009.12.9].

〈<http://www.nfm.go.kr>〉.

데일리안 [cited 2009.12.9].

〈http://www.dailian.co.kr/news/news_view.html〉.

새진북신문 [cited 2009.12.9].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

